

# “국가대표 도시 전북” 군민 환호

무주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환영”... 황인홍 군수, “모든 역량 보태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태권도와 펜싱, MTB 종목 개최지 무주군도 열렬히 환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역사적인 여정과 순간에 무주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라며 “세계 도시들과 겨뤄 마침내 올림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보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태권도와 펜싱, MTB 종목이 무주에서 개최돼 주목을 받고 나아가 전북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연대의 힘이 무주를 통해 빛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 군수는 “무엇보다도 관련 종목의 인프라 확장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SOC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는 물론, 정부 부처, 정치 권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해 12월 무주군체육인들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1월에는 8백여 명의 군민이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현장 평가 실사에 동참해 유치 기원 열기를 보여줬으며 황인홍 무주군수가 실사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태권도와 펜싱, MTB 종목 개최지 무주군도 열렬히 환영했다.

현장에서 태권도 종목을 주관점을 두고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해 평가 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주군 기관사회 단체에서도 지역 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Go Beyond, Great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마음을 함께 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권이 있는 대한펜싱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진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전북이 압도적인 표 차로 국가대표 도시가 됐다는 게 정말 자랑

스럽다”라며 “최종 개최지가 되면 무주에서도 3종목이나 치러진다고 하니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모두가 바라는 전주~김천, 대전~남해 철도를 비롯한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 건설이 올림픽 성공적 추진을 위한 SOC 사업으로 가속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36 올림픽 개최지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며 전북은 앞으로 인도(아마나바드), 카타르(도하) 등 세계 10여 개 국가 도시들과 개최권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본격 돌봄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4일 관내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진안군 가족센터(진안을 중앙로 54-1)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주체 선정 및 시설 내부 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신학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으로 초등학생이 주 대상이며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명이다.

돌봄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소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정가돌봄은 물론 일시 돌봄이 제공된다.

일시 돌봄은 갑작스러운 사유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정기적 돌봄으로 기존의 다돌봄 시설과 차별화를 뒀다.

또한 센터에서는 아동보호, 놀이와 휴식, 숙제지도 같은 일반적인 돌봄



프로그램과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요리, 체육활동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특히, 보호자의 부재에 따른 긴급 돌봄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신청은 전화(063-433-5566) 상담 후 보호자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1일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산서면에 위치한 장수군 3.1운동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여 선열의 고귀한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용근 도의원, 김광훈 군의원, 한국회 군의원, 김성수 농협중앙회지회장, 독립운동가 유족, 보훈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반암지역아동센터 파랑새 중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식전공연으로 진행된 ‘대한이 살았다’는 실제 1919년 3.1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 여자 감옥 8호실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7분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아 부른 노래로 기념식에 의미를 더했다.

최훈식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3.1절 106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장수군도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출산꾸러미’ 지원

진안군은 3월부터 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 출산가정에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지난해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

과에 따라 품목을 확대(6~7종)하고 스와들수트, 젖병세정제, 젖병세척솔, 방수기저귀 가방, 쪽쪽이, 산모 미역 등 출산부와 산생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용품을 구성했다.

진안군 출산 꾸러미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자연특별시 무주, 산림자원 가치 높인다

직접 일자리 근로자 발대식 개최·산림조화와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4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5년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근로자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지리 참여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업장 안전교육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림자원 가치 향상에 적극 동참할 것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가꾸기,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 등을 다짐했다.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운영은 산림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3~11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억 6천 9백여



만 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페산산물수집단 등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단, 산림 일반 병해충 관리, 임도 관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숲 생태 관리, 숲길 등산 지도, 녹색 일자리 확충, 가로수 관리단, 등산로 관리단 등 9팀이 주축이 돼 추진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무주군은

탄소중립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산림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 위상에 걸맞은 산림사업 추진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25년 산림사업(조림·숲 가꾸기) 관리업무를 전문 기관인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에서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산유림 경영 활성화와 △예산 확보, △홍보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 15억 원을 투입해 경제림과 큰 나무 조림 사업(140ha), 숲 가꾸기 사업(1,248ha)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군산림조합이 사업 대상지 확보를 비롯해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을 맡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등

## 장수누리파크 누리놀이터 3월부터 확대 운영

장수군이 3월부터 보다 많은 방문객들의 이용을 위해 장수누리파크 누리놀이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법정공휴일에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장수누리파크 누리놀이터는 무료로 다양한 레고와 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운영시간을 기존 10:00~17:00에서 09:30~17:30으로 확대 조정하고 휴관일을 당초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에서 월요일 휴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장난감을 최신 놀이 트랜드에 맞춘 새로운 장난감으로 교체 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다양한 놀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방문객들의 이용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와 신규 장난감 교체를 통해 더욱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누리파크를 찾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및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귀농·귀촌인 위한 멘토 컨설팅단 출범

귀농 귀촌 희망자와 초기 진입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할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멘토 컨설팅단이 4일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진안군귀농귀촌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멘토와 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각면에 1명씩 선정된 총 10명의 지역민 멘토들이 위촉장을 받고 멘토 활동을 시작했다.

진안군은 귀농귀촌 예정자 및 5년 미만 귀농·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민으로 구성된 멘토 컨설팅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 멘토들은 멘티(귀농귀촌인)를 대상으로 영농상담을 하고 지역민과의 갈등 해결을 돕는 등 귀농귀촌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과 상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진안군 행정지원 현황, 민집 및 토지, 일자리 정보 등도 제공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